

'혼불' 속 우리말 특별한 문장으로 소개

최명희문학관, 10명 시인·작가 참여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은 우리말 문장에 담아 야외 전시

소설 '혼불' 속 우리말이 전복의 시인·작가들이 쓴 진솔한 예문으로 관람객을 만난다.

14일 최명희문학관에 따르면 올해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은 '혼불' 속 우리말'을 이주 특별한 문장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함께한 문학인은 김병용·서철원 소설가와 문신·임희중·정철성 문학평론가, 신병구·이병초·장창영·장현우·조석구 시인 등이다. 열 명의 시인과 작가는 열 권의 '혼불'을 한 권씩 나눠 읽고 각각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은 우리말을 두 개씩 가려 뽑아 아내를 향한 다정한 마음을 문장에 담았다.

이들이 선택한 단어는 △귀꿈스럽다 △꽃무지개 △꽃밭 △나누다 △낫내 △덩쿨덩쿨 △마음저리 △무망 △버섯거리다 △별뿔 △아리 잠적하다 △양글다 △엮기다 △오뚜마니 △와스라거리다 △잉걸 △츄생이별 △짚사라 △푸리푸리 △희망을 꺾었다.

특히 '혼불' 1권을 읽고 '꽃밭'이란 단어를 선택한 정철성(전주대 교수) 문학평론가는 '당신과 내가 어릴때 손씨로 꽃잎을 모아 꽃밭을 지어놓고 소꿉살림을 시작한 것이 그러니까 삼십여 년 전 그해 봄이었습니다.'라는 예문으로 소박한 마음을 전했고, '혼불' 8권에서 '귀꿈스럽다'를 뽑은 임희중(前 전주신용고 교장) 문학평론가는 '당신은 나의 귀꿈스러운 면조차도 웅숭깊은 사람이라 여겨주었을 뿐 아니라 애지중지 세 아이 이렇게 곱게 키워줬으니



소설 '혼불' 속 우리말이 전복의 시인·작가들이 쓴 진솔한 예문으로 관람객을 만난다.

나 이제 당신을 위해서만 남은 생 살고 싶소'라는 문장으로 속내를 털어냈다.

스무 개의 우리말은 그 의미와 '혼불' 속 문장, 단어를 선택한 문학인들이 쓴 문장과 함께 소개된다. 단어의 의미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참고했으며,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2023년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어문 규

범을 기준으로 정해진 교열가가 고쳤다.

전시는 봄부터 여름까지 문화관 마당에서 열린다.

한편 야외전시는 (사)한국문화관광협회의 '문화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장은성 기자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푸른 자연 속 여유로운 낭만 담아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영화와 함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무주산골영화제' (2023. 6. 2~6. 6)가 제11회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 공식 포스터는 무주산골영화제가 개최되는 계절인 초여름의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선명한 색채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활짝 피어난 꽃들 사이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여우의 뒷모습까지, 포스터에 등장하는 모든 이미지들이 자연 친화적인 상상력으로 완성되어 따스하고 여유로운 낭만과 휴식의 순간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이미지들은 포스터 너머 스크린을 바라보는 모습을 연상케 해, 관객들이 자연 속 동물들과 한데 어우러져 영화제를 즐기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더불어 포스터 전체를 아우르는 키치한 무드는 축제가 가진 활찬 에너지를 전하는 동시에 20~30대 관객들의 소장 욕구까지 불러일으킨다.

올해 공식 포스터는 일러스트레이터 '오오우



(oyow)'의 아트워크로 탄생되었다. 오오우 작가는 현대백화점, 네이버, 유한킴벌리, 아모레퍼시픽, BTS 그래픽 리믹스 등 유명 브랜드 및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인정 받고 있는 작가로, 자신만의 개성을 갖춘 아름다운 글과 그림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무주산골영화제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담은 공식 포스터를 공개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린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총 5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기자

JB문화공간, 클래식 렉처 콘서트 이어져

JB음악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JB문화공간(전북은행 한옥마을지점 2층)을 통해 클래식 렉처(Lecture) 콘서트 '러브 인 뮤직(Love in Music)'을 도민들에게 오는 12월 7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러브 인 뮤직'은 JB음악그룹 전북은행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전주시립 교향악단 정기선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의 해설과 다양한 클래식 기반의 실내악 연주로 구성됐다.

지난 9일 바이올리니스트 박찬호 전주시립 교향악단 악장과 피아니스트 이주용 전주대학교수가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을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2악장', 피아졸라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탱고' 등의 음악을 선사 했다.

다음 공연은 오는 4월 20일에 진행되며 플루티스트 이현주 군산대 교수와 피아니스트 정혜연 교수의 무대가 마련된다. /김영태 기자

신비한 자연현상 찰나 사진에 담아

국립태권도박물관서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40점 전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은 전주기상지청(지청장 이용섭)과 함께 제39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이하 제39회 공모전) 수상작을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6월 4일까지 전시한다.

기상청 주관으로 열린 제39회 공모전 수상작은 신기한 자연현상의 찰나를 담은 작품들로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등 40점이 선보인다.

대상작은 서울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물러와 도심 일부에만 비를 쏟아낸 모습을 담은 김주형씨의 '국지성 호우', 금상은 제주 성산일출봉 주변에 번개가 치는 모습을 촬영한 유수기씨의 '성산일출봉에서 구름 번개', 은상은 전북 김제시 벽골제 인근 하늘에 용오름 현상을 순간적으로 잡아낸 김용원씨의 '용오름 현상' 등의 작품들로 흔히 볼 수 없는 신비한 기상현상을 만날 수 있다.

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태권도원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많은 고객들



대상작 김주형씨 '국지성 호우'

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 갈 것이다. 앞으로 신진 미술 작가 전시회 등 한국관광 100선인 태권도원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태권도 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완주팔하모니오케스트라, 한국산악사진가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오케스트라 공연·사진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태권도원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김경희 개인전' 개최

김경희 개인전 '생명의 비약'이 15일~20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작가에 따르면 한국 전통 채색화를 기반으로 두고 현대적 기법을 활용한 작업을 지속해왔다. 특히 한국 전통 채색화의 오방색에 갇히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원색을 섞은 간색을 절묘하게 사용한다. '화해'에서 드러나듯이, 작가는 색과 색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간색을 적절히 사용해 그 경계가 매우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은 작가가 한지 위에 분채, 금분, 은분, 석채 등을 혼합해 수십 차례 덧칠해가며 원하는 색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기인한다. 더 나아가 작가만의 개성 있는 색과 선, 형상으로 구성된 조화로운 화면은 작품의 주제적 측면과도 상응한다.

작가가 탐구하는 주제는 '생명'으로, 모든 생

명체들이 내뿜는 기운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을 주지하며 작품을 선보인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장, 생성, 관계, 확장 등으로, 이 요소들은 이른바 활력에 대한 감수성에 포함된다. 작가가 생명체들의 기운을 예술로 승화시켜 작품에 담아내는 것이 곧 활력에 대한 감수성이 담긴 작품인 것이다.

화폭에 '생명'을 충만하게 담아내고자 탐구하는 김경희 작가는 "이번 전시 '생명의 비약'을 통해 관람객들이 상서로운 실제의 기운을 받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경희 작가는 군산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조형예술디자인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한류미술협회, 전북여성미술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창작준비금신청 대행 서비스 강화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3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 사업에 대응해 도내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원료하고,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4일 재단에 따르면 행정 인력을 추가배치하고 사업 온라인 신청 등 행정상 애로사항이 있는 도내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신청은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artist.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한 우편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